



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3.19. 서울신문은 「‘전쟁 추경’도 현금성 지원 재현되나...지역화폐 유력 검토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국민 현금성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, 이르면 다음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,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 - 다만,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